# 시험 연습용

| 수험번호 | 2520 [illegible] | 성명 | 남희수. | 평점 | |
|---|---|---|---|---|---|

세계는 현재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OpenAI, 클로드 등 생성형 AI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이들은 생활 전반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
금융 또한 AI를 활용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AI~~ 금융 앱 상 AI 챗봇 등 많은 곳에서 이미 AI는 쓰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2013년 금융전산 사고 이후 금융시스템 보호를 위해 망분리 규제를 시행해왔다. 이는 당시에는 정보 유출 차단으로 금융 보호에 기여했으나, AI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시점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금융권 망분리의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고는 금융권 망분리 규제 완화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로 인한 기대효과와 잠재적 리스크 분석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AI의 발달 뿐 아니라 Norton, 구글 워크스페이스 등 SaaS, 이른바 클라우드 기반 구독형 소프트웨어의 보편화 또한, 존재한다.
이들을 통해 금융권의 IT 연구 개발과, 업무 지원 등을 받자는 것이 망분리 규제 완화의 골자다.
규제 완화 시 먼저, 생성형 AI를 통해 문서 작성, 화상 회의 등 업무 효율성이 제고 되어, 꼭 사람이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업무에 대한 업무 집중도나 인력 배치가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로, AI를 활용해 현 시스템의 취약점을 실시간으로 테스트하고, 보안 분석 등을 실행해 오히려 사이버 방어 역량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테스트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가능하게에 IT 자원 구축이나 보호막 개발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망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리스크도 존재한다. 생성형 AI를 업무에 사용한다면 기업 기밀이나, 민감한 금융 혹은 개인 정보가 입력되어 외부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에 대한 입력을 제한하고 있지만 여전히 리스크가 잔존한다. 이에 철저한 적은 교육과 함께 정보에 대한

본 문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가없이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입력 권한을 정보의 등급을 매겨 나누어 입력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작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정보 입력에 대해 일정 시간 경과 시 정보의 존재가 영구 삭제되는 대응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 리스크는 SaaS, 생성형 AI 등이 해킹이나 유출을 당할 시에 대해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기 내용과 같이 시간 경과에 따른 삭제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아울러 유출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여 법정다툼에서의 오랜 소요를 줄이는 사후 대책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 리스크는 디지털 양극화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연합회와 같이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AI 금융 통합 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에 선별적 지원을 통해 양극화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AI는 분명 금융에 획기적인 업무 단축과 더불어 위험요소 사전 발견 등 장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지만 사용에 따른 정보의 유출과 해킹 등 위험요소도 명확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만들어 사용 근거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정보 유출에 대해 일정 기간 보유 후 삭제, 마스킹 제도 등을 통해 리스크를 줄여나가며 금융 생태계의 혁신과 보안의 균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본 문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허가없이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156966/업무지원팀/******.3.10/2026/06/18 10:37:08